

## 21장 다 찬양하여라

-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 1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이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 2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리라
-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 3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이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 1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 생명 샘이 솟아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 2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 3 세상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 하도다 아멘

### 기도 담당

8/9(화)	8/10(수)	8/11(목)	8/12(금)	8/13(토)	8/15(월)
이교용 집사	조왕영 집사	고재학2 집사	권인영 집사	류광언 집사	김경원1 집사

2022년 8월 9일(화)

## 이른아침예배

인도 : 최유진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1장 다같이
기도	이교용 집사
성경봉독	역대하 4장 18~20절 인도자
찬양	시편 51편 새벽찬양대
설교	『안뜰과 성소의 성물들』 최유진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같이
찬송	210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역대하 4:18~20>

- 18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못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 19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 20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켜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 <히브리서 8:5>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 <요한복음 2: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 <역대하 4:1,6,7>

- 1 솔로몬이 또 못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십 규빗이며
- 6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 7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 <시편 141: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2년 8월 9일(화)

은혜의 하나님! 아무리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회뿐인 과거, 회피하고 싶은 현재, 알 수 없는 미래까지도, 결국 주님과 함께 걸어온 믿음의 길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고, 영원한 것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의 하나님! 한국교회 어머니교회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말씀을 살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현존(現存)하는 미래인 새문안의 다음세대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구원보다 큰일이 없고, 영원한 생명보다 값진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군 복무와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더욱 붙잡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부서진 곳, 무너진 곳, 냄새 나는 곳, 찌른 곳에 회복을 주시고,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살아있는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터널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걸음 끝을 향해 걷다 보면 반드시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세계 위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